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5년 1월 17일

**CUOMO 주지사, CHRISTINE C. QUINN을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hristine C. Quinn씨를 특별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팀원으로 합류한 Quinn씨는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일을 해온 분으로 두 번째 임기를 준비하는 주지사의 아젠다에 힘을 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Christine Quinn씨는 진보적인 대의를 위해 활동하는 검증된 리더이자 챔피언입니다. 이분을 우리 행정부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Andrew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Quinn씨가 뉴욕시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했을 때와 공무원이자 옹호자로서 오랜 세월 활동했을 때처럼 뉴욕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을 위해 싸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뉴욕을 보다 공정하고 모두가 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Quinn씨가 말했습니다. “Chelsea에서 Glen Cove까지, 그리고 Buffalo에서 Beacon까지, 저는 뉴욕주 구석구석에서 뉴욕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게 신뢰를 보내주신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Christine C. Quinn씨는 현재 스포츠 분야에서 동성애 혐오증과 트랜스포비아를 종식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Board of Athlete Ally, Tyler Clementi Foundation, NARAL Pro-Choice New York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Quinn씨는 Cuomo 주지사의 2014 재선 캠페인 자문관과 여성평등당(Women's Equality Party)의 주요 활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1999-2013까지 뉴욕시의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6년에는 뉴욕시의회의 최초 여성 및 최초 LGBT 대변인으로 선출되어 뉴욕시 역사상 최고위 LGBT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시의회 대변인으로서 뉴욕의 다섯 개 보로에서 수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생활 임금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뉴욕시에서 일련의 입주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녀는 뉴욕주 입법부에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미국에서 결혼 평등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공직에 나서기 전에는 뉴욕시의회 의원인 Tom Duane 의원의 수석 참모로 활동했고, 반폭력 프로젝트(Anti-Violence Project)의 실무담당자로서 뉴욕시경찰국과 중요 범죄 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Quinn씨는 최근 Harvard University Institute of Politics Spring 2015 펠로우가 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